

2019년도 글로벌인사이트 분석을 통한 글로벌 건설시장 평가 (토목분야를 중심으로)

한재구*, 박환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mail:jghang@kict.re.kr

Global building market assessment through 2019 global insight analysis(Focusing on civil engineering)

Jae-Goo Han*, Hwan-Pyo Park*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는 Global Insight 자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74개국의 건설 규모 및 리스크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목분야를 중심으로 국가별 시장 성장성 및 국내 기업의 진출 용이성을 판단하기 위한 건설시장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해외건설 진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서론

본 연구 Global Insight 자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74개국의 건설 규모 및 리스크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축, 토목, 플랜트, 기타 등의 공종 중 건축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별 시장 성장성 및 국내 기업의 진출 용이성을 판단하고 해외 건설산업의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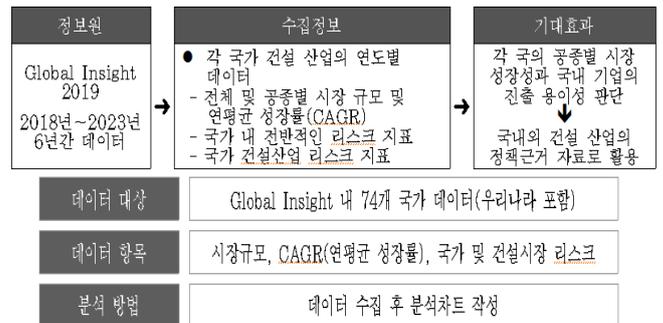
종합평가는 시장규모, CAGR, 리스크 각 항목에 비율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하였다. “리스크 I, 리스크 II” 항목의 경우 값이 클수록 해당 리스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 자료의 국가별 리스크 값을 역산(Reverse)하여 평가하였다. 종합평가에 반영되는 각 항목의 적용비율은 해외건설 분야 연구 인력을 대상으로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실시하여 도출하였다.

2. 조사 방법 및 데이터 수집

시장규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6년간 데이터를 수집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시장규모분석에서는 Global Insight 내 15개의 세부 항목 중 Infrastructure Transportation, Industrial Utilities, Industrial Transportation 등을 토목분야로 분류하였다.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2018년부터 2023년의 시장규모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수치가 클수록 시장의 성장성이 높음을 의미하고 이는 향후 해당 국가 건설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적용된다.

리스크 항목은 총 3가지로 구성되는데, 리스크 I은 대상 국가의 리스크 항목으로 수치가 클수록 해당 국가 내 위험요소가 많음을 의미하며, 리스크 II는 대상 국가의 건설시장 리스크 항목으로 수치가 클수록 해당 국가 내 건설 시장에 위험요소가 많음을 의미하고, 리스크 III은 리스크 I, II의 두 항목에 대한 평균값으로 건설 시장 평가에 있어 국가별 리스크의 정도로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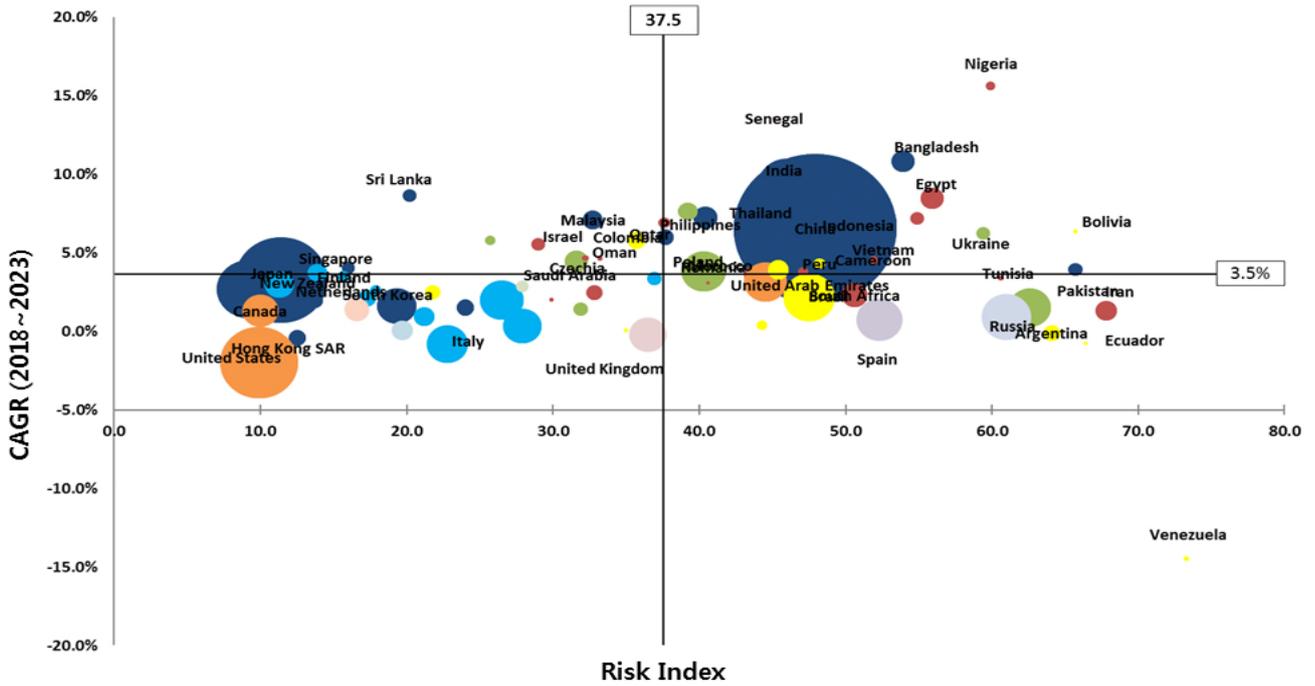


<그림 1> 조사방법 및 흐름

3. 2019년도 토목분야 글로벌 건설시장 평가

토목시장은 4개 분석 공종 중 가장 높은 성장률(3.5%)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시장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며 특히 나이지리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이집트 등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기타 세부분석은 다음과 같다.

① 고성장-저위험 국가는 총 11개국이며,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시아: 3개국, 동유럽: 2개국,



<그림 2> 국가별 토목 시장의 매력도 평가

중동 및 아프리카: 3개국, 남아메리카: 1개국, 서유럽: 2개국’ 등으로 조사되었다. 연평균성장률(CAGR) 기준 상위 3개 국가는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불가리아로 분석되었으며 하위 3개 국가는 핀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로 분석되었다.

② 고성장-고위험 국가는 총 13개국 이며,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시아: 8개국, 동유럽: 4개국, 중동 및 아프리카: 8개국, 남아메리카: 3개국’ 등으로 조사되었다. 연평균성장률(CAGR) 기준 상위 3개 국가는 나이지리아, 세네갈, 방글라데시로 분석되었으며 하위 3개 국가는 미국, 모로코, 핀란드로 분석되었다.

③ 저성장-저위험 국가는 총 26개국 이며,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시아: 6개국, 동유럽: 1개국, 중동 및 아프리카: 2개국, 북아메리카: 2개국, 남아메리카: 2개국, 서유럽: 13개국’ 등으로 조사되었다. 연평균성장률(CAGR) 기준 상위 3개 국가는 그리스, 일본, 네덜란드로 분석되었으며 하위 3개 국가는 미국, 프랑스, 홍콩으로 분석되었다.

④ 저성장-고위험 국가는 총 14개국 이며,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동유럽: 1개국, 중동 및 아프리카: 4개국, 북아메리카: 1개국, 남아메리카: 6개국, 서유럽: 2개국’ 등으로 조사되었다. 연평균성장률(CAGR) 기준 상위 3개 국가는 튀니지, 멕시코, 요르단으로 분석되었으며 하위 3개 국가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아르헨티나로 분석되었다.

3. 결론

본 연구 Global Insight 자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74개국의 건설 규모 및 리스크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목분야를 중심으로 국가별 시장 성장성 및 국내 기업의 진출 용이성을 판단하기 위한 건설시장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성장-저위험 국가로는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불가리아가 대표 적이며 고성장-고위험 국가는 나이지리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등이 대표 적이며, 저성장-저위험 국가로는 그리스, 일본, 네덜란드 등 비교적 선진국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저성장-고위험 국가로는 튀니지, 멕시코, 요르단 등이 대표 적으로 분석되었다. 본 결과는 향후 해외 건설산업의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Acknowledgement

본 논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0년도 주요사업 (과제명: 건설정책 전략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임을 밝히며,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문헌

[1] IHS(2019), “Global Insight 통계자료
 [2] 박환표, 한재구(2019), “건설산업의 글로벌 건설 경쟁력 평가연구보고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9.12